LH, 녹색기술 · 보금자리 홍보관 '더 그린' 개관

친환경 보금자리주택 홍보의 장 마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는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서울시 자곡동)에 「THE Green」 홍보관을 개관했다.

LH는 보금자리주택의 에너지 성능 검증 및 발전과, 녹색 및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전시 및 체험을 통해 녹색성장정책을 홍보하고자 올해 초부터 THE Green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THE Green관은 보금자리를 의미하는 '새의 둥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나무들을 촘촘히 엮어서 건물을 에워싼 모습으로 디자인되었다.

홍보관에서는 친환경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녹색기술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며, 실험관에서는 보금자리 아파트와 동일한 환경에서 녹색기술과 에너지절약 기술의 성능을 실험하고 모니터링하게 된다.

THE Green관은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한 만큼 보금자리주택에 관심있는 이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수 LH 기술기준처장은 "THE Green관은 편리하고 건강한 친환경 보금자리주택과 다양한 녹색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금자리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친환경 녹색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금

▲ 보금자리를 연출하기 위해 나무를 촘촘히 엮어 '새의 둥지'를 형상화시킨 '더 그린'관 전경

자리주택에 적극 적용해 녹색성장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THE Green(홍보관과 실험관)의 공간계획 및 적용기술

홍보관 1층은 보금자리정책과 녹색성장정책을 홍보하는 공간이며, 2층은 일상생활속의 녹색기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각종 녹색기술과 장수명 주택기술, 에너지절약 기술, 공간활용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이 실제주택에 적용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다.

3층은 빛 · 열 · 음 · 공기환경 제어기술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층간소음과 차음기술, 광덕트와 LED조명, 결로와 단열 등 다양한 성능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옥상에는 옥상녹화와 태양열 발전설비, 태양열집열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휴식과 전망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실험관 2층에는 3개의 보금자리 실험주택이(에너지 25%절감 주택, 고령자 주택, 원룸형 주택) 건설되어 있고 미래주택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THE Green주택'이 있으며, 3층에는 40% 에너지 절감주택과 3개의 실험공간 그리고 각종 실험데이터들을 종합관리 · 분석하는 '모니터링실'이 있다.

해외건설수주 사상 첫 600억달러 돌파

사상 최대치이자 올해 목표치를 뛰어넘은 기록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국토해양부는 두산중공업의 사우디 라스아주르 담수화 플랜트 수주(14억6000만달러)가 확정, 신고됨에 따라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0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치이자, 올해 연간 목표치(600억달러)마저 뛰어넘은 기록이다.

특히 2006년(164억달러)에 기존 사상 최대액(1983년 136억달러)을 넘어선 후 2007년(398억달러), 2008년(476억달러), 2009년(491억달러)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최대수주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고의 효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186억달러)을 필두로 한 중동의 플랜트 부문이다.

전체 수주액의 76.5%인 466억달러와 82.4%인 502억달러를 중동과 플랜트 쪽에서 수확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 등 용역부문 해외수주액도 11억달러로 해외건설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수주액은 700억달러 내외가 될 것이란 게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의 관측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현재 업체별로 수주를 확정짓고 계약조건을 협상 중인 물량이 100억달러 정도인데, 이들 물량이 연내 신고되느냐, 내년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700억달러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해외수주 목표액은 600억달러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해외수주 목표액은 업체별 해외사업계획을 토대로 작성하되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와 같은 일시적 호재는 배제하고 철저히 보수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체별로 수립중인 내년도 해외사업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내달 중순쯤 정부의 내년 수주목표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브라질 고속철도나 터키 원전 수주에 성공한다면 내년에 다시 올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6년 연속 사상최대 수주고 갱신이란 진기록도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사상 초유의 해외건설 활황기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내달 초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공동으로 해외건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며 아직 초안 단계지만 내달 초에는 확

정해 12월7일 '플랜트의 날'에 맞춰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에는 해외건설업계의 애로점인 해외건설정보, 인력, 금융, 외교 등 4개 부문에 걸친 부처별 지원과제들과 중동 플랜트에 편중된 해외수주를 지역, 공종별로 다각화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페이퍼컴퍼니 솎아내기' 12월초 조사 착수

국토부, "연말 실질자본금 못 맞추면 퇴출"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가 내달 초 본격화된다.

최근 잇따른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등록기준 불법·허위충족 사례와 강화된 건설업관리규정에 맞춰 어느 해보다 고강도로 진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12월 초부터 건설관련 협회와 공조해 건설업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불법충족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대상리스트를 관할 지자체별로 통보해 영업정지, 등록말소(동일 사유로 3년 이내 2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조사는 불법사례나 검찰고발 사례가 많은 자본금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채, 표지어음, 증권사계좌, 외화예금 등의 편법 가능성을 철저히 가려내고 실질자본금이 아닌 경우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는 조사 특성상 현 시점에서 보완이 힘든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계가 오히려 신경써야 할 부분은 올해 말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채워둬야 하는 점이다.

2010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시행될 내년 말 정기조사 때는 새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예금 확인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고 건설업 등록 후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 때 진단기준일도 직전월말이 아니라 직전 회계연도말로 바뀌기 때문이다.

올해 결산일(12월31일)을 포함한 두달간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으로 유지해야 내년 말 정기조사는 물론 3년 단위 주기적 신고 때도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태조사·검증장치를 내실화하고 처분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조사, 적발, 처분통보, 청문, 처분, 처분 후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은 내달 조사부터 바로 적용한다.

처분대상 업체가 건설정보망을 통해 밀착 관리되므로 처분 후에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하고 지자체 청문과정에서 빠져나갈 길도 좁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올해 결산 때 등록기준을 반드시 합법적으로 충족하고 이를 치밀하게 확인해야 내년에 페이퍼컴퍼니로 몰려 처분을 받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정밀 디지털 지도 제작·보급

재난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국토 공간 영상서비스 가능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위치검색 및 시설물관리용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대축척 수치지형도(축척 1/1,000)를 실제 지형에 맞춰 수정 완료하고, 일반인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는 기존 중·소 축척의 수치지형도(1/5,000, 1/25,000 등)와 달리 버스정류장,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의 생활 지리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로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와이브

※ 국토지리정보원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전국 84개시(군지역을 제외한 전 市)에 대하여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 보급중임

로(WiBro)*나 와이파이(Wi-Fi)* 등의 무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서비스되는 위치검색용으로 제공되고, 도심지의 각종 시설물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의 상 · 하수도, 가스, 전력 등의 관리시스템(UIS)*에 기본도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현실세계를 사이버상에서 구현하는 증강현실* 기술에 기본이 되는 지리정보 데이터로 활용 될 최신의 정밀 디지털지형도라고 밝혔다.

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는 재난재해 예방계획 수립, 도시계획 활용, 문화재 관리, 공사 설계시 측량비용 절감, 포탈 · 내비게이션 · 게임업체 등의 다양한 활용분야가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은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 등으로 지형변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약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제 지형에 맞는 최신의 정밀 수치지형도를 수정 ·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수치지형도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http://www.ngic.go.kr) 및 국토공간영상정보서비스(http://air.ngii.go.kr)를 통하여 유 · 무료로 제공된다.(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료). [※ 구입가격 : 수치지형도 1매당 12,000원, 항공사진 1매당 20,000원]

WiBro : 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
Wi-Fi :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랜 기술
UIS(Urban Information System) : 도시정보를 체계화한 전산시스템
증강현실 :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널리 알려진 말의 유래

루비콘 강을 건너다

기원전 50년, 로마의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추대하였고, 시저를 해임한 뒤 군대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시저는 원로원의 보수파에 대항하여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는 '주사위는 던저졌다(그리스의 희극 시인 메난드로스의 시구)'고 외치며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했다. 시저는 폼페이우스 일당을 몰아내고 로마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말은 어떤 용단을 내릴 때 쓰이게 되었다.

루비콘 강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이탈리아와 알프스 내륙쪽 갈리아 주의 경계였다. 로마로 입국할 때 여기서 군대의 지휘권을 포기하는 관습이 있었다.

시저는 뛰어난 전략가인 동시에 간결하고 박력있는 문장가로도 유명했는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쓴 편지를 친구에게 보내어 전승의 기쁨을 전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中에서